

이주여성들의 역설적 공간: 억압과 저항의 매개체로서 공간성을 페미니스트 이주연구에 접목시키기*

정 현 주**

〈국문초록〉

최근 페미니스트 연구에서는 거의 유행처럼 다양한 공간적 개념을 차용해 왔다. 이러한 개념들은 대부분 은유로서 여성들이 처한 특정한 상황을 시각화하거나 묘사해 왔다. 그러나 공간적 개념은 과연 은유로서만 유용한 것인가? 이 논문은 공간적 개념이 은유로서 뿐만 아니라 여성을 연구하는 개념적 틀로서, 그리고 무엇보다 연구대상인 여성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정치적 도구로서도 유용하다는 점을 주장한다. 이를 위해 이주여성연구 분야를 분석의 대상으로 하여 공간개념이 어떻게 이들 연구에 접목될 수 있는지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주여성은 파레냐스의 표현에 의하면 “세계화의 하인”으로 이 시대 새롭게 등장하는 젠더화된 하위계층이다. 경계를 횡단하는 초국가적 이동성을 가졌지만 생존회로의 말단에서 다중적인 모순과 억압에 처한 이들은 초국가적 사회장을 형성하고 스케일의 정치를 구사함으로써 자신의 탈구위치를 협상하는 존재들이다. 본 논문은 이주여성의 공간정치에서 중요하게 거론되는 스케일, 장소, 경계, 이동성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주여성연구의 대표적인 분석틀인 말러(Mahler)와 페사(Pessar)의 ‘권력의 젠더지리’와 파레냐스의 ‘탈구위치’를 공간적인 관점에서 분석하면서 이들 연구가 결혼이주여성 등 더욱 다양한 사례에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주제어: 이주여성, 스케일, 장소, 경계, 이동성

* 이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7-361-AL0016).

**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연구교수. jung0072@gmail.com
『젠더와 문화』 제5권 1호(2012) pp. 105-144

© 2012 계명대학교 여성학연구소

1. 서론

“공간은 모든 권력의 작동에 기초가 된다(Foucault, 1984: 252).”

공간적 개념은 최근 페미니스트 연구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주요 페미니스트 저작들의 제목만 살펴봐도 공간적 개념을 심심찮게 차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기만의 방』(Woolf, 1929), 『페미니즘: 주변에서 중심으로』(Hooks, 2010), 『다른 세상에서』(Spivak, 1987), 『경계없는 페미니즘』(Mohanty, 2005), 『안과 밖』(Fuss, 1991), 『밀실의 인식론』(Sedgwick, 1990), 『경계시대들/경계선에서』(Anzaldúa, 1999) 등과 같이 잘 알려진 텍스트들이 대표적인 예이다. 제목뿐만 아니라 주요 개념들도 공간적 용어를 사용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위치의 정치”, “코라”, “위치성”, “안과 밖을 동시에 접하는(outsider within stance)”, “사잇공간”, “교차성(intersectionality)”, “상황지식(situated knowledge)” 등 상당수 페미니스트 용어들이 공간적 함의를 내포한다. 인문사회과학에서 공간에 대한 관심이 환기되기 시작한 것은 20세기 후반 이후부터 가속화된 지구화와 지방화 및 ‘시공간압축(time-space compression)’이라는 새로운 시공간 경험을 이론화할 필요성과 함께 푸코와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이 컸다고 알려져 있다(로즈, 2011: 323). 그러나 이는 다른 학문분과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유독 페미니즘 연구에서 공간적 개념의 차용이 두드러지는 현상을 설명하기에 부족함이 있다(로즈, 2011). 일부 페미니스트들은 페미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의 동일시에 반대하면서 가부장제는 포스트모더니즘 이전부터 존재해 왔으며 따라서 페미니즘의 공간적 전환은 포스트모더니즘과는 별개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Price - Chalita, 1994).

포스트모더니즘이나 후기구조주의가 페미니즘의 공간적 전환에 영향

을 준 것은 분명하지만 페미니즘은 그 이전부터 공간적 개념을 내포하고 있었다는데 필자도 동의한다. 왜냐하면 페미니즘의 지속적인 관심사인 여성에 대한 억압과 여성해방의 정치가 상당 부분 공간을 매개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다. 로즈(2011)는 페미니스트들이 공간에 주목해야 할 첫 번째 이유로 공간이 여성억압의 주요 기제였음을 제시한다. 여성에 대한 가부장적 규범은 여성이 제한된 공간에 갇히도록 했을 뿐 아니라(가령 여성은 공공장소에서 몸을 쭉 펴거나 다리를 벌리지 않도록 요구받는다) 남성적 시선 하에 감시당하고 보여지도록 함으로써 여성의 몸을 복종시킨다(로즈, 2011). 공간의 공적/사적 분리가 여성을 사적공간에, 재생산노동의 영역에 가두어둠으로써 여성의 공적영역 진입을 통제하고 남성의 공적공간에 대한 독점을 유지해 왔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맥도웰, 2010). 로즈가 말하는 두 번째 이유는 이러한 공간을 페미니스트적 전유를 통해 해방의 도구로 새롭게 상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공간이 지닌 역설적 성격 때문에 가능하다고 한다(로즈, 2011). 역설적 공간이란 배타적인 위치관계밖에 상상할 수 없는 2차원 평면공간이 아니라, 마치 4차원 기하학의 공간처럼 동시에 여러 곳을 점유할 수 있고 상호 중첩되며 안과 밖이 연결된 공간이다(로즈, 2011). 이러한 공간적 상상은 많은 페미니스트들이 권력관계를 전복할 수 있는 대안적인 위치성을 공간적 비유를 빌려서 상상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가령 콜린스(Collins, 1990)가 말하는 안과 밖을 동시에 접하는 탈식민주체의 위치성이나 ‘주변부’ 위치성(Hooks, 1990), 경계지대에 선 혼성적 주체(Anzaldúa, 1999) 등이 그 예이다.

이에 더 나아가 페미니스트들을 비롯한 비판적인 공간연구가들은 권력뿐만 아니라 대항주체의 저항도 공간을 통해 조직될 수 있다는 입장을 개진해 왔다. 공간을 사회와의 변증법적 관계(socio-spatial dialectics)로 제시한 바 있는 도린 메시(Doreen Massey)는 공간의 정치학을 주창

하며 공간을 다음의 세 가지 특징을 통해 이해할 것을 제안한다. 첫째, 공간은 사회적 상호관계의 산물, 즉 사회적 과정과 그 관계들 이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성의 일부로 상호구성하고 있다. 둘째, 공간은 동시적 복수성이 발현되는, 즉 다양성이 공존하는 영역이다. 셋째, 공간은 항상 만들어지는 과정이며 그 미래는 특정 방향으로 운명지워진 것이 아니라 열려있다(Massey, 2005: 9-11). 따라서 공간은 다양한 방식으로 정치적 기획이 될 수 있다.

공간이 억압과 해방의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데 동의한다면 다음에 제기되는 질문은 이같은 공간이 메타포로서만 존재하는지(즉 우리의 상상을 자극하고 이해를 높여주는 언어적 도구인지) 아니면 실제 공간인지 여부다. 필자의 입장을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메타포는 실제 물질관계 속에 배태되어 있으며 둘은 변증법적으로 존재한다’이다. 따라서 메타포로서 공간이 추구하는 바를 실제 공간관계를 통해 찾아내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공간이 급진적으로 점유되기 위해서는 실제 현실공간에서의 관계변화와 실천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공간이 메타포로서만 소비되는데 그친다면 그 급진적 잠재력은 크게 폄하될 수밖에 없다.

이 논문은 여성억압의 기제이자 페미니스트 저항의 실천적 도구로서 공간이 어떻게 개념화되고 실제로 작동하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공간은 메타포인 동시에 실제 물질관계를 수반하며, 연구자가 연구대상을 이해하기 위해 만들어내는 개념인 동시에 연구대상이 활용할 수 있는 실천적 도구가 되기도 함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페미니스트 이주연구를 분석대상으로 하여 공간적 개념이 이들 연구에 어떻게 개입할 수 있는지를 탐색한다. 이주여성은 파레냐스(Parreñas)의 표현에 의하면 “세계화의 하인”으로, 이 시대 새롭게 등장하는 젠더화된 하위계층이다(파레냐스, 2009). 경계를 횡단하는 초국가적 이동성을 가졌지만 ‘생

존회로(Sassen, 2002)'의 말단에서 다중적인 모순과 억압에 처한 이들이야말로 21세기 글로벌 자본주의의 경계지대에 선 혼성적 주체이자 안(중심부)과 밖(주변부)을 동시에 접한 하위주체들이다. 이들에 대한 공간의 억압과 이들이 구사하는 공간정치를 살펴보는 것은 페미니스트 연구에서 공간의 다이내믹을 가장 잘 포착할 수 있는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페미니스트 이주연구에서 공간에 대한 탐색

이주연구에는 공간성에 대한 성찰이 내재될 수밖에 없다. 이주라는 과정이 바로 공간을 가로지르고 공간을 창출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과거 이주연구는 방법론적 국가주의에 입각하여 국가별 이주통계를 분석하는 것이 주를 이루었다. 여기에서 공간은 국가 내지는 행정단위로 치환되었고 이주가 일어나는 배경에 불과했을 뿐 그 자체가 분석이나 이론적 성찰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젠더관점을 이주연구에 접목하는 페미니스트 이주연구가 최근 이주경관을 설명하는 주요 접근으로 등장하면서 페미니즘이 가지고 있던 공간에 대한 관심이 이주연구에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했다. 타자의 위치로 규정된 여성의 위치에서 사회를 재해석하고자 했던 페미니스트 관점이 타자의 동시적 공존과 복잡한 권력의 지형을 담아낼 수 있는 공간적 개념을 선호했던 것처럼, 페미니스트 이주연구도 타자 중에서도 타자로 규정되는 이주여성들과 그녀들의 이야기를 공간적 개념을 통해 묘사하였다. “사회적 위치(Mahler and Pessar, 2001)”, “권력의 젠더지리(Mahler and Pessar, 2001; Pessar and Mahler, 2003)”, “탈구위치(파레나스, 2009)”, “초국가적 사회장(Goldring, 1998)”, “초국가적 결혼경관(Lauer, 2008)”, “경계를 가로지르

는 결혼(Constable, 2005)”, “사회적 경계(Lan, 2003a)”, “경계넘기(Parreñas, 2001)”, “초국가적 가족(이혜경 외, 2006)”, “글로벌 에쿠메네(Robindson, 2007)”, “글로벌 여성(Ehrenreich and Hochschild, 2002)”, “생존회로(Sassen, 2002)”, “저항의 공간(Wang, 2007)” 등 다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공간 메타포는 이주여성 연구 문헌에서 넘쳐나고 있다. 이러한 개념들은 일반적인 페미니즘의 공간 메타포가 함의하는 여성의 중첩적이고 주변부적인 위치성에 더하여 이주여성의 특수한 위치성을 반영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경계를 초월하는 이동성과 경계너머에서 새롭게 생성된 정체성 및 관계(가령 초국가적 가족)이다. 초국가주의 담론이 이주여성연구의 중범위적 분석도구로 빈번하게 차용되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경계넘기(trans)라는 이주의 본질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하여 이주여성 문헌에서 다루고 있는 이주여성은 대부분 생존 회로를 통해 글로벌 경제의 주변부에서 중심부로 이주하는 여성들, 즉 파레냐스(2009)가 “세계화의 하인”이라고 지칭한 여성들이다. 글로벌 위계질서의 말단에 위치한 이들이 초국가적인 이동성을 갖추고 누구보다 많이, 그리고 멀리 이동한다는 역설은 이주여성들을 주목하게 만든 배경이 되었다. 따라서 초국가적 또는 초경계적(trans) 맥락에서 이주여성을 위치지우는 것은 여성을 사적영역에 가두어 두고 이동성을 제한했던 근대가부장적 체제와 담론에 대한 반론인 동시에 경계를 초월하는 것이 주체의 해방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페미니스트 정치의 염원을 투영한 것이다.

페미니스트 이주연구가이자 지리학자인 레이첼 실비(Rachel Silvey)는 페미니스트 지리학에서 연구해온 공간적 개념들이 이주연구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탐색하는 논문에서 스케일의 사회적 구성, 장소와 정체성, 경계의 사회적 생산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그 가능성을 제시하였다(Silvey, 2006). 본 논문은 이를 기반으로 하여 스케일, 장소, 경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넘나들 수 있는 이동성(mobility)을 이주경관에서 작동하는 주요 공간성으로 추가하고자 한다. 이 장에서는 각 개념이 지리학과 페미니스트 연구에서 어떻게 사용되어 왔는지, 이주여성연구에 어떤 함의를 주는지를 간략히 검토하도록 한다.

1) 스케일

스케일(scale)은 지도학에서 ‘측적’이라는 용어로 번역되어 실제 거리와 지도상에 재현되는 거리와의 비율을 의미해 왔다(Marston, 2000). 일반적으로 스케일은 현상이 일어나는 공간적 규모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는데,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특히 사회적 과정이 일어나는 위계적 층위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통용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공간연구 분야에서 스케일이 사회적 구성물이라는 의미로 재해석되면서 그 활용도가 매우 넓어졌다. 사회적 구성물로 스케일을 인식한다는 것은 스케일이 주어지거나 고정되거나 분절된 위계관계가 아니라 자본과 권력, 다양한 사회적 주체에 의해 만들어지며, 따라서 가변적이고 상대적이며 진행형인 성격을 지닌다고 보는 것이다.²⁾ 이러한 인식에 의하면, 스케일의 창출은 권력관계 속에서 결정되며 이는 곧 정치적인 과정이다. 페미니스트 연구가들을 비롯한 비판적 지식공동체는 이러한 스케일 구성의 정치적 측면, 즉 스케일의 정치에 큰 관심을 보여 왔다.

2) 사회적 구성물로서 스케일에 대한 논쟁은 1990년대 후반 지구화-지방화 논쟁이 불거지면서 서구 지리학계를 중심으로 공간연구자들 사이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로 등장하였다. 당시의 논쟁을 조망하기 위해서 드레이너와 라이트너(Delaney and Leitner, 1997)의 논문과 같은 특집호에 실렸던 논문들을 참조할 것. 페미니스트 연구에서 스케일을 더욱 발전시킨 논의를 보려면 마르스톤(Marston, 2000)과 나가 외(Nagar et al., 2002)를 참고할 것. 페미니스트 이주연구에서 스케일을 접목하고 적용한 연구를 보려면 정현주(2008), 실비(Silvey, 2004, 2006), 데바사하얌 외(Devasahayam, et al., 2004)를 참고할 것.

젠더 및 계급적 억압은 스케일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더욱 공고해진다. 가령, 글로벌 자본주의는 WTO나 초국가적 정치기구와 같은 글로벌한 스케일의 통치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국가단위의 축적체제를 글로벌로 상승시켰고, 이는 글로벌 스케일에서 자본의 불균등한 배분을 가속화하였다. 국가의 보호 장벽이 무너진 글로벌 자본주의 체제에서 주변부 국가의 노동자들은 더욱 더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글로벌 무한경쟁 속에 내던져지거나 중심부의 하층노동계급으로 유입되는 결과를 야기했다. 계급 불균등이 글로벌 스케일에서 재생산된 것이다. 재생산노동의 국제 분업이나 가부장적 젠더관계의 전지구적 확장도 이러한 자본축적을 위한 스케일 체제의 변화에 영향을 받았다. 이처럼 억압의 기제가 되는 스케일은 역설적이게도 저항의 도구가 되기도 한다. 글로벌 자유무역체제를 반대하여 글로벌 스케일에서 시민사회 운동을 조직한 반세계화운동이라든지 신자유주의 도시화에 대항하여 다양한 시민단체들이 도시권 연대(right to the city alliance)를 조직하는 것(www.righttothecity.org) 등이 지구화시대 저항의 스케일이 아래로부터 대안적으로 구축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페미니스트 연구는 이에 더 나아가 스케일이 미시적 차원에서도 구성되며 특히 여성적 주체들에 의해 저항과 정체성의 협상의 수단으로 만들어진다는 새로운 관점을 추가했다. 이러한 입장은 기존의 스케일 논의에 내재된 이분법적 가정들이 가부장적인 공간 이분법과 일맥상통한다고 비판한다(Nagar et al., 2002). 즉 거시스케일은 남성적이고 생산의 영역과 관련되고 억압적이고 강력한 스케일로, 미시스케일은 여성적이고 재생산 영역과 관련되고 억압받으며 미약한 스케일로 가정되어 왔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분법은 전자를 후자보다 중요하다고 전제하면서 후자를 학문의 영역에서 배제시켜 왔다. 물론 거시스케일에서의 억압(가령 노동의 국제적인 젠더분업)이 여성들의 억압을 규정하는 강력한 기제가

되며 이를 전복하기 위해 스케일 상승(*scaling up*)의 정치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시스케일에서의 억압과 미시스케일을 통한 투쟁이 미약하고 의미가 없다는 것은 잘못된 가정이다. 페미니스트 연구가들은 거시적인 스케일과 미시적인 스케일은 분리되지 않으며 미시적인 스케일에서의 저항이 때로는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는 주장을 제시했다(Devasahayam, et al., 2004; Marston, 2000).

페미니스트 이주연구에서 스케일은 이주경관을 구성하는 다양한 과정들의 상호작용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보여주는 조작적 개념으로 제시되었다. 상당수의 연구들이 이주에 개입하는 젠더과정을 로컬, 내셔널, 글로벌 과정 등으로 구분해서 제시하고자 했다. 다음 장에서 자세히 검토할 대표적인 페미니스트 이주연구의 이론적 틀인 ‘권력의 젠더 지리(Mahler and Pessar, 2001)’나 ‘거시범위-중범위-미시범위’라는 3가지 범주의 분석틀(파레냐스, 2009)도 스케일을 분석의 준거로 사용했다. 그러나 스케일은 연구자나 독자의 이해를 돕는 개념일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자체가 이주여성들이 만들어내는 또는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정치적 도구가 될 수 있다는 데에 그 중요성이 있다. 특히 이주여성들이 경계를 횡단한다고 했을 때 그 경계는 단순한 선(가령 국경)이 아니라 새로운 스케일로의 도약을 의미하기도 한다. 어떤 스케일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상상하고 협상해 나갈 것인지는 어떤 종류의 권력관계에 자신을 위치시킬 것인지와 직결된다. 스케일은 바로 그 ‘어떤 종류의 권력관계’를 결정짓는 준거가 된다(Smith, 1992). 가령 정현주(Jung, 2012)는 한국의 결혼이주여성의 공간정치를 다룬 연구에서 일부 이주여성들이 자신들을 감시하고 폄하하는 지역사회의 경계를 벗어나 초지역적인 스케일에서 일상을 재조직함으로써 ‘농촌의 가난한 외국인 신부’가 아닌 ‘아시아 여성’, 즉 ‘초국가적인 다문화시민’으로서 정체성을 협상하는 사례를 소개했다. 이들 여성은 인종차별적 가부장제 아래서 자신을 규정하려는

지역사회의 권력관계 속에 편입되는 것을 거부하고 대신 한국정부의 다문화주의 담론을 자신들의 방식으로 재구성하여 초국가적인 장에서 자신을 위치지우는 스케일 상승의 정치를 구사한 것이다. 여기서 이들의 초국가적 상상력은 실제 물리적 경계(국경과 생활권)를 넘는 이동성을 확보함으로써 가능했다는 점에서 물질로서의 공간과 메타포로서의 공간은 서로 연동되어 작동함을 보여준다.

2) 장소

장소(place)는 주관적인 의미가 부여된 특별한 공간을 의미한다. 존 에그뉴(Agnew, 1987)는 장소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로 위치, 현장(locale),³⁾ 장소감을 제시한 바 있다. 흔히 장소는 ‘보편적이고 추상적인’ 공간과 대비되어 특수하고 우연적이며 차이를 만들어 내는 단위로, 일정한 경계로 둘러싸인 소규모의 공간으로 인식되어 왔다(Cresswell, 2004). 특히 지구화 담론 이후에는 장소란 보편적이고 억압적인 지구화에 대항하여 지방의 특수한 정체성과 차이를 지켜내는 저항의 구심점이라는 인식이 차이의 정치를 옹호하는 쪽에서 확산되었다. 그러나 차이의 정치의 효용성을 폄하하는 정치경제학적 공간이론가들은 장소를 자본의 투자가 축적되어 특정한 물리적, 상징적 하부구조(가령 도시공간구조나 노동시장 구성)가 고착된(fixed) 지역단위로 보았다. 이러한 장소는 유동적인 자본과 모순적인 긴장관계를 조성함으로써 ‘유동성과 고정성의 대립’이라는 자본주의의 본질적 모순을 집약적으로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Harvey, 1982). 여기서 장소는 자본주의라는 구조에 대한 대립항으로서, 비본질적이고(따라서 우연적이고), 능동적으로 변화를 야기하기 보다는 구조적 변화에 대하여 수동적으로 반응하며, 뿌리내리고 있는(따라서 변화하지

3) 사회적 관계를 매개하는 물질적인 하부구조 또는 환경을 의미한다.

않는) 대상으로 인식된다(Harvey, 1996).

정치경제학자들의 다소 구조주의적인 장소인식을 비판하며 새로운 장소개념을 제시한 사람은 페미니스트 경제지리학자인 도린 메시(Dorin Massey)이다. 그녀는 전통적인 장소인식뿐만 아니라 데이비드 하비(David Harvey) 등의 정치경제학적 장소개념을 비판하며 ‘글로벌 장소감(a global sense of place)’이라는 용어를 통해 상대적이고 구성주의적인 장소개념화의 발판을 마련했다(Massey, 1994). 메시가 생각하는 ‘글로벌 장소감’이란 장소에 대한 기존의 4가지 오해에 대한 반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4가지 오해란 다음과 같다. 장소는 1) 고착(rooted)되어 있으며, 2) 방어적(defensive)이며, 3) 단일한 정체성을 지니며, 4) 뚜렷한 경계를 지닌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메시는 다음과 같이 반박한다. 첫째, 장소란 진행형이며 사회적 상호작용의 결절지이다. 둘째, 장소를 고유하게 만드는 것은 그 내부의 역사성이 아니라 장소 외부와의 상호작용으로서 장소는 늘 내부와 외부가 뚫려있다. 따라서 장소란 지구화의 반대급부 아니며 지구화 그 자체가 이미 장소화된 과정이다. 즉, 보편적인 하나의 지구화란 없으며 구체적인 장소들을 통하여 작동하는 특정한 지구화들이 있을 뿐이다.⁴⁾ 셋째, 장소는 하나의 단일한 통일체가 아니며 복수의 정체성과 내부적 다양성을 지닌다. 넷째, 장소는 정해진 경계가 없으며 늘 가변적이고 유동적이다(Massey, 1994).

장소를 상대적이고 개방적이며 진행형으로 보는 ‘글로벌 장소감’은 이주연구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초국가주의 논의에서 거론되는 장소개념들(비록 장소라는 말 대신 다른 용어를 쓰지만)이 메시의 장소개념과 일맥상통하는데, 메시의 개념은 이들 개념들에서 분명하게 드러나

4) 지구화가 장소보다 상위 스케일에서 따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화 자체가 이미 장소화된 과정이라는 메시의 생각은 세계도시 런던을 사례로 한 연구에 더욱 분명히 드러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메시(Massey, 2007)를 참고할 것.

지 않는 장소의 특성들을 규정해 준다는 점에서 초국가주의 논의에서 참고할 만하다. 가령 ‘초국가적 사회장(transnational social fields)’ (Goldring, 1998)이나 ‘트랜스로컬리티(translocality)’ (Appadurai, 1996)는 그 경계가 불투명하고 장소 외부와의 연계망을 통해 작동하는 공간이다. 그러나 이 개념들은 이주자들의 삶의 장이 ‘국가’ 경계를 뛰어넘어(trans) 형성된다는 점에 너무 주안점을 둔 나머지 초국가성 너머, 또는 그 하부에서 일어나는 과정들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감이 있다(정현주, 2010). ‘글로벌 장소감’은 이처럼 초국가적 맥락에서 다양한 스케일에 걸쳐 작동하는 장소들을 개념적으로 보완해 줄 여지가 있다고 본다. 또한 이러한 초국가적 장소들은 이주여성들에 대한 차별과 억압이 가시화된 공간이지만 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자원도 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 장소는 이주여성들의 일상생활의 스케일에서부터 초국가적 스케일에 걸쳐 다양하게 형성되는데, 여성들의 네트워크와 정서적 연대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이들의 초국가적 상상력과 정체성의 협상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주가사노동자들의 주말공동체(weekend enclave)(Yeoh and Huang, 1998)나 초국가적 경계지대에서 작동하는 난민캠프(Pessar, 2001), 한국 결혼이주여성들을 위한 다문화센터 및 한글교실(Jung, 2012) 등이 이러한 장소의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3) 경계

경계(border, boundary)는 이주연구 문헌에서 메타포로서 가장 광범위하게 쓰이는 용어이다. 이주여성들은 물리적 경계도 넘지만 다양한 사회적 경계를 넘는다. 젠더, 인종, 계급, 종교, 국적 등 다양한 사회적 위치는 각각의 경계를 상징적으로, 물리적으로 설정하는데 이주여성들의 경계넘기란 다양한 정체성의 경계들을 오가며 협상하는 것을 일컫는다.

경계는 이처럼 다양한 정체성들이 경합하고 혼합되는 최전선을 만들어 낸다. 글로리아 안잘두아(Gloria Anzaldúa)의 『경계지대들/경계선에서』는 이러한 사유에 대한 학문적 언어를 제공한 문학작품으로 널리 인용되고 있다. 안잘두아는 치카나(chicana)⁵⁾ 레즈비언 페미니스트 활동가이자 시인/소설가/이론가이며, 제1세계(미국)에서 제3세계(치카나) 정체성을 지닌 채 미국과 멕시코의 경계지대에서 성장하였다(노승희, 2004). 여러 경계들이 교차하는 경계지대는 이런 의미에서 실제 공간이기도 하며 다양한 정체성들이 중첩되는 비유적 공간이기도 하다. 안잘두아가 경계지대를 주목한 것은 ‘메스티자(mestiza)⁶⁾ 주체성’이라고 칭한 혼성적 주체가 이곳을 통해 생성되기 때문이다(노승희, 2005; 정순국, 2010). 탈식민 주의자들이 주변부에 위치지워진 혼성적인 주체의 혼성성과 주변성이 탈식민적 대항의식을 길러낼 수 있는 토대라고 주목한 것처럼(바바, 2002), 안잘두아 역시 메스티자 주체의 혼성성이 제국의 통제망을 벗어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졌다고 보았다(노승희, 2004, 2005; 정순국, 2010). 그러나 노승희(2005: 42)는 메스티자 주체는 호미 바바(Homi Bhabha)의 양가적 탈식민 주체와도 다르다고 지적한다. 그에 의하면 “바바의 탈식민 주체가 식민 권력의 응시 아래 자이분열과 ‘흉내내기’에 빠져있는 동안, 안잘두아의 메스티자 주체는 다원성을 긍정하며 경계선을 횡단한다(노승희, 2005: 42).” 식민과 탈식민이라는 이분법적인 권력 관계 속에서 식민 권력의 감시가 닿지 않는 제3의 공간에서 자기모순적

5) 아즈텍 인디언들과 스페인 정복자들과의 혼혈인종인 치카노(Chinaco)의 여성형으로서, 1848년 멕시코-미국 전쟁이 끝나면서 맺어진 과달루페 이달고 조약에 의해 미국에 양도된 멕시코 영토(현재 미국 남서부)에 속해 있다가 미국 시민이 된 멕시코인들이 치카노의 기원이다. 현재는 미국 내 멕시코계인들을 일반적으로 치카나/치카노라고 부르기도 하며, 특히 원주민 뿌리를 부정하는 용어인 히스패닉 또는 라티노 대신 원주민 정체성을 강조하는 명칭으로 쓰인다.

6) 유럽계와 아메리칸 인디언과의 혼혈인종을 일반적으로 지칭하는 메스티조(mestizo)의 여성형.

인 저항을 하는 바바의 분열된 탈식민 주체보다 인종/계급/젠더의 다중적인 억압 속에서 “제3세계가 제1세계에 의해 피흘리는 곳(Anzaldúa, 1999: 25)”인 경계지대에서 생존하기 위하여 “경계선 없이 살아야 하고 교차로가 되어야 하는(Anzaldúa, 1999: 216-217)” 메스티자 주체가 오늘날 이주여성과 더욱 가까운 모습이다.

안잘두아의 경계지대 메타포는 이주여성의 주체성 형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상상을 제공해 주었지만 그것이 메타포로서만 머문다면 경계지대가 물리적 공간과 결합했을 때 가질 수 있는 파괴력을 간과할 수도 있다. 페미니스트 지리학자인 멜리사 라이트(Wright, 1997, 1998)는 안잘두아가 말한 미국과 멕시코의 경계지대에 설치된 수출자유지구(일명 마길라도라)에서 멕시코 국경을 넘어온 이주여성노동자들이 어떻게 강간당하고 착취당하며 결국에는 소모품으로 전락하는지를 고찰했다. 라이트(1997, 1998)는 소모품이 된 그녀들의 육체는 결국 글로벌 자본축적에도모하는 수단이 되었다고 지적하면서 여성들의 경계넘기가 자본과 권력에 의해 유린당하는 참혹한 현실을 고발했다.

한편 페미니스트 지리학자들은 메타포로서의 경계는 사회-공간적으로 생산된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경계를 협상하는 공간정치를 소개했다. 나가(Nagar, 1998)는 탄자니아에 정착한 인도 이주여성들을 사례로 하여 이들이 공적 공간에서 경계짓기를 통해 계급, 종족, 종교의 차이의 정치를 구사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경계는 안과 밖, 우리와 그들, 주체와 객체를 구분하는 잣대가 된다는 점에서 경계짓기는 매우 중요한 정치적 행위이다. 누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경계를 만들어 내는지는 미시공간에서 이주여성들을 둘러싼 억압이 구성되는 양상을 보여줄 수 있다. 또한 주어진 경계를 넘어서 새로운 경계를 만들어내는 이주여성들의 정체성의 정치를 포착하는 개념적 도구가 될 수 있다.

4) 이동성

마지막으로 이동성은 이상에서 언급한 각종 공간성들을 가로지르거나 특정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개인의 일상생활 영위를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기본권인 이동성은 글로벌 시대에 그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다. 그러나 ‘시공간압축(하비, 1994)’으로 상징되는 글로벌 시대의 초이동성은 모두에게 동등한 접근성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권력관계 속에서 접하는 위치에 따라서 차별화된 접근성을 만들어 냈다. 메시에 의하면 권력의 한 쪽 끝에 있는 자본가와 엘리트계급은 시공간압축을 이용하여 누군가를 다른 곳으로 배치할 수 있는, 즉 이동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을 더 많이 갖게 된 반면, 반대 쪽 끝에는 (그들에 의해) 실제로 이동하지만 그러한 이동을 지배할 수 없는 주체들이 있다(Massey, 1994: 149-150). 오늘날의 이주여성들이 바로 그 후자에 해당될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이동을 지배할 권한도 없이 이동당하는 주체라 할지라도 초국가적으로 확장된 이동성은 그들에게 새로운 지리적 상상력을 제공한다. 가령 이주여성들은 이주 자체를 하나의 삶의 양식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즉, 삶은 끊임없이 어디론가로 이주하는 과정이라고 여기는 것이다. 현재 한국에서 가사노동자로, 공장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수많은 여성들도 이곳에서의 경험을 발판으로 미래에 미국과 캐나다와 같은 ‘꿈의 목적지’로 이동할 것이라는 희망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초국가적으로 확장된 이동성을 가진 그녀들이 일상공간에서는 상당한 이동의 제약을 경험한다. 국경을 횡단한 여성들이 경계너머에서 이동의 제약을 받는다는 것은 초국가시대의 이동성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페미니스트 지리학자들은 여성들이 이동에 제약을 받는다는 점을 끊임없이 제기해 왔다. 그 제약은 젠더화된 공간구분과 여성들에게 부과

된 성역할에 기인한다. 가령 ‘공간의 뒷에 갇힌 여성(spatial entrapment of women)’ 테제는 근대도시의 디자인과 물리적 하부시설이 가부장적 젠더관계에 기초하여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성들을 소외시키고 사적공간에 가둔다는 명제이다(Hanson and Pratt, 1991). 특히 전후 서구의 전무후무한 교외화는 통근시간과 이동거리를 늘려 이동성이 낮은 여성들을 교외의 주거지에 가둬두는 결과를 빚었고, 가사와 육아로 인해 시공간 제약이 많은 이들 중산층 여성들은 교외지역에서 거대한 ‘핑크칼라 계토(pink color ghettos)’를 형성하여 저임금/파트타임/단순사무 직종으로 유입되었다고 한다(Hanson and Pratt, 1991). 그 밖에도 여성은 폭력과 강간의 두려움으로 인해, 가부장적 규범을 강요하는 감시의 시선으로 인해 특정한 시간대에 특정한 공간으로의 이동에 제약을 받는다.

그러나 유색인종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의 이동성 제약이 오로지 젠더 때문만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젠더와 인종차별의 이중적인 억압이 결합되어 유색인종 여성은 보통 여성들보다도 이동에 제약을 더 많이 받는다는 것이다. 일례로 벨 후스(Bell Hooks)는 유년시절 할머니 집으로의 이동의 경험을 이렇게 묘사한다.

내가 어렸을 때 마을을 가로질러 할머니네 집으로 가는 외출은 가장 흥미진진한 유년시절의 경험 중 하나였다. ... 증오심에 가득 차서 베란다에서 우리를 노려보았던 하얀 얼굴들, 그 무시무시한 백인성(whiteness)을 지나쳐야 했기에 할머니 집으로 가는 길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그 공포감이 기억난다. 베란다에 아무도 없었을 때조차도 마치 그 베란다들이 “위험,” “여긴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너는 안전하지 않아”라고 외치는 것 같았다. 마침내 할머니 집 마당에 당도했을 때, 베란다 의자에 앉아서 시가를 피우는 거스 할아버지의 새까만 얼굴이 보이고 그 무릎 위에 앉아서 쉬게 되었을 때의 안도감, 드디어 집에 왔다는 느낌이란! 도착과 귀향의 느낌, 그 달콤함은 백인의 권력과 지배를 계속 일깨워주던 여행의 쓴 뿌리와 무척 대조되었다(Hooks, 1990: 41).

유색인종 페미니스트들의 주장을 확장시키면 이주여성들의 이동성은 더욱 제약될 가능성이 높다. 인종, 젠더, 계급, 국적, 언어소통능력 등 이주여성들이 수용국 사회에서 지닌 제약은 이들의 이동의 제약으로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때때로 현실로 나타나기도 한다. 정현주(2007)는 한국 농촌으로 결혼 이주한 여성들의 이동성에 대한 논문에서 이들이 사회적으로 규정된 성역할, 언어, 교통하부시설, 거주지 위치 및 적응기간에 의해 이동의 제약을 받는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주여성들은 이동의 제약으로 인해 ‘간헐’있는 것만은 아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이동제약을 완화해가기도 했다(정현주, 2007). 만델(Mandel, 2004)도 이주여성들 간의 이동성 비교를 통해 이들의 이동성을 결정짓는 요인 및 이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주여성들의 다양한 생존전략을 소개했다.

3. 이주여성 이론화를 위한 분석틀을 공간적으로 다시 분석하기

이상에서는 페미니스트 이주연구에 접목될 수 있는 공간개념들을 검토하였다. 이 장에서는 페미니스트 이주연구에서 널리 알려져 있는 대표적인 두 가지 분석틀을 대상으로 하여 공간적 개념들이 어떻게 이주여성 이론화에 기여할 수 있을지를 탐색해 본다. 인류학자 페사(Passar)와 말러(Mahler)에 의해 제시되어 남미이주여성 및 결혼이주여성 연구에 적용되기도 한 ‘권력의 젠더지리’와 필리핀 가사노동자에 대한 심층분석으로 전 세계적인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파레냐스의 3가지 범주의 분석이

그 대상이다. 이들 연구는 “스케일,” “사회적 위치,” “탈구위치,” “응접의 맥락”(장소적 맥락) 등 공간적인 개념을 분석의 핵심 구성요소로서 설정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이 핵심적인 구성요소에 대한 이론화가 미진하다는 점이 이들 연구의 설명력을 떨어뜨리는 결정적 요인이라고 필자는 판단한다. 아래에서는 ‘권력의 젠더지리’가 간과하고 있는 스케일의 사회적 구성을 보완하는 한편, 파레나스의 분석틀이 간과한 두 가지 지점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장소와 스케일 등의 공간개념이 어떻게 이러한 공백을 보완할 수 있을지를 검토하도록 한다.

1) ‘권력의 젠더지리’와 스케일의 재구성

‘권력의 젠더지리’는 페미니스트 인류학자인 말러와 페사(Mahler and Pessar, 2001)가 새로운 이주연구의 분석틀로서 제시한 개념이다. 이들은 기존의 남성중심적 또는 젠더중립적인 이주연구 경향을 비판하면서 최근 이주경관의 대표적인 현상인 이주의 여성화를 젠더화된 이주의 과정으로서 이해하기 위하여 일련의 이론적, 경험적 연구들을 제안하였다(Mahler and Pessar, 2006; Pessar, 2001; Pessar and Mahler, 2003). 말러와 페사는 이주연구를 관통하는 핵심개념으로서 젠더를 제안하면서, 젠더와 이주가 결합하여 작동하는 ‘다양한 지점’을 포착하는 개념적 도구로서 ‘지리학’ 또는 ‘스케일’을 분석틀의 주요 구성요소로 제시했다. 여기서 ‘지리학’과 동일어로 제시된 ‘스케일’은 젠더관계가 몸에서부터 초국가적 단위에 이르기까지 여러 층위에서 작동함을 분석하기 위한 개념이다(Pessar and Mahler, 2003). 그 밖에 권력관계의 지형 속에서 개인의 위치협상을 의미하는 ‘사회적 위치’와 동일한 사회적 위치 속에서도 개인마다 차이를 만들어내는 결정적 요인으로서 개인의 ‘에이전시’를 스케일과 더불어 권력의 젠더지리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로 제안하였다

(Mahler and Pessar, 2001).⁷⁾ 이들의 설명에 의하면, ‘스케일’은 젠더과정이 일어나는 일종의 배경 내지는 젠더과정을 조직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분석적 틀이 되고, 사회적 위치와 에이전시는 젠더과정을 변화시키는 변수가 된다.

여기서 스케일에 대한 두 가지 오해가 발생한다. 첫 번째 오해는 스케일이 분석변수들의 바깥에 있는 배경 또는 무대가 된다는 가정이다. 이러한 가정은 스케일뿐만 아니라 공간에 대한 기존의 많은 연구들이 가진 오해이기도 하다. 인간관계 및 권력 작동의 배경으로서 공간이 스케일로 치환된 것일 뿐이다. 그러나 공간과 스케일은 변수들의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바로 변수가 된다. 즉 젠더과정은 공간과 스케일 ‘에서(in)’뿐만 아니라 이들이 ‘통해(through)’ 작동한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공간과 스케일은 젠더과정이 펼쳐지는 무대일 뿐만 아니라 젠더과정을 변화시키는데 개입한다. 이러한 오해는 두 번째 오해를 불러 일으켰다. 즉 스케일이 고정되고 주어진 위계체제라는 암묵적인 가정이다. 마치 계단처럼 각 스케일은 분절적으로, 위계적으로, 이미 주어진 것처럼 존재한다고 막연히 가정된다. 이것은 로컬, 내셔널, 인터내셔널 또는 글로벌 이라는 특정한 스케일 체제에 대한 상상이 마치 모든 스케일을 대표하는 것처럼 인식된 결과이다. 그러나 스케일은 고정되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협상되고 구성되는 것임을, 더구나 주어진 위계체제 속에서 권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중첩적으로, 또는 다양한 방향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많은 스케일 연구자들이 주장했음

7) 말러와 페사는 도린 메시의 ‘권력의 기하학(power geometry)’이라는 개념을 가져와서 ‘에이전시’에 대한 이론적 틀을 구성하고자 하였으나 이러한 차용은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약간 부적절하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권력의 기하학’은 ‘에이전시’보다 오히려 ‘사회적 위치’와 더욱 직접적으로 관련된 개념이며 그 속에 이미 ‘스케일’에 대한 함의가 내재되어 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정현주(2008)를 참고할 것.

을 이미 전 장에서 밝혔다.

‘권력의 젠더지리’를 스케일에 대한 부분적인 오해를 수정하고 보다 폭넓은 의미에서 스케일 개념의 이론적 가능성을 탐색한다면 이주여성 연구의 이론적 틀로서 보다 강력한 설명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 두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지리학’을 ‘스케일’로 굳이 축소하지 말고 공간과 장소 등 다른 공간성도 포괄하는 원래 의미의 지리학으로 확장한다면 단순히 젠더가 작동하는 수직적 관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수평적 관계도 포함하는 분석 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수많은 젠더연구자들이 다양한 공간메타포들을 통해 규명하고자 했던 여성의 다중적인 위치성과 위치의 정치학, 서로 다른 가능성들의 동시적 공존, 주변부 위치가 지닌 전복가능성의 역설 등을 단순히 ‘사회적 위치’와 ‘에이전시’만으로 설명하는 것보다 공간적 권력관계를 통해 설명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것이다. 또한 거시적 차원에서 이주경관의 특징(가령 이주의 방향성이나 지역 간 관계 등)을 조망하는 개념으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스케일’을 단순히 분석의 범주로만 활용하지 말고 (물론 그것도 유용하지만) 스케일 개념이 내포한 실천적 가능성에 더욱 주목한다면 이주여성의 정치를 해석하는 더욱 강력한 개념이 될 것이다. 스케일 개념이 내포한 실천적 가능성이란 스케일이 단지 자본과 국가에 의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피자배주체의 권력화 도구로 재구성될 수 있다는 인식이다. 이는 여성 주체가 몸, 가정, 지역, 국가, 글로벌 등의 다양한 스케일들을 상징적으로, 담론적으로, 물질적으로 구축하여 저항의 디딤돌로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주여성이 몸의 정치를 통해 수용국의 인종 및 젠더담론에 저항하는 것이나(Jung, 2012) 난민여성이 초국가적인 NGO의 힘을 빌어서 자국의 가부장적 이주정책에 도전하는 것(Pessar, 2001) 등이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

2) '탈구위치'와 그 너머

‘권력의 젠더지리’와 비슷한 시기에 출판된 『세계화의 하인들: 여성, 이주, 가사노동』은 사회학자인 파레나스가 로마와 로스엔젤레스에 정착한 필리핀 가사노동자들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조사한 민족지적 연구에 토대를 두고 있다. 제목만큼이나 도발적인 이 연구는 출판된 후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으며 11년이 지난 지금도 달라진 게 별로 없는 현실에서 여전히 큰 설명력을 지니고 있다. 이 연구의 최대 강점은 이주의 여성화를 추동하는 거시적인 과정과 주체 수준의 미시적인 분석, 그리고 그 가운데서 작동하는 중범위적인 수준의 분석을 결합하여 이주여성연구의 종합적인 분석틀을 제시했으며, 다양한 이론들을 수용하여 각각의 수준에서 작동하는 과정들을 이론화했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중층적인 과정의 결과물로서 이주여성들이 공통적으로 맞닥뜨리게 되는 문제점과 모순을 ‘탈구위치(dislocation)’라는 용어로 설명하였다(파레나스, 2009). 탈구위치는 불완전한 시민권, 초국가적인 가족이라는 가족별거의 고통, 모순적인 계급이동(계급하락), 정착사회의 이주민공동체에도 뿌리내리지 못하는 무소속감으로, 요약하자면 국가, 가족, 계급, 공동체라는 4가지 지점에서 발생한다(이혜경, 2010).

거시적인 수준의 분석은 세계체제모델과 사센(Sassen, 1984)의 논의를 기반으로 하여 이주의 여성화의 원인과 이주여성의 위치를 결정짓는 구조적 과정을 이론화한다. 주변부와 중심부라는 국제 권력관계의 위계질서 속에서 글로벌 자본주의 재구조화로 인한 노동력의 여성화는 중심부의 글로벌도시에서 재생산노동력의 공백을 발생시키고 이는 주변부 여성노동력의 이주를 발생시키는 주요원인이 된다. 즉 ‘재생산노동의 국제적 분업’(Parreñas, 2000)이 완성되는 것이다. 그러나 제3세계 여성을 제

1세계의 저임금 노동자화시키는 경제의 탈민족주의화와는 달리 후기산업 국에서 경쟁력을 잃어가는 노동자들의 불만이 이주민을 희생양으로 삼는 등 정치의 재민족주의화가 형성됨으로써 권력의 말단에 위치한 여성 이주자들은 수용사회로부터 시민자격을 거부당하는 탈구를 경험하게 된다(파레냐스, 2009).

한편 중범위 수준에서는 초국가주의 이론과 젠더연구를 결합하여 이주의 양상들을 정밀하게 밝히는 작업이 진행된다. 파레냐스는 초국가적 친족 네트워크가 연쇄이주를 통해 특정 지역으로 이주의 흐름을 만들어 내며, 여기에는 젠더가 핵심적으로 작동한다고 보았다(파레냐스, 2009). 그 결과 초국가적인 가족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가족관계가 형성되지만 파레냐스는 이를 수용국의 높은 이민장벽과 글로벌 경제불균등이 만들어 낸 비극이라고 보았다(파레냐스, 2009). 이주여성들은 가족별거의 고통과 함께 남겨진 자녀들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리는 탈구적 상황에 직면하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다양한 물품과 정보의 교환으로 만들어진 이주여성들의 ‘초국가적 사회장’은 상상의 글로벌 필리핀공동체를 만들어냄으로서 이들에게 초국가적인 정체성을 부여한다(Parreñas, 2001). 그러나 이러한 ‘상상의’ 공동체는 오히려 정착지에서 2등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을 수용하게 함으로써 이들의 불완전한 시민권을 정당화하는 딜레마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주체수준의 분석은 이주여성들의 행위자성을 강조한다. 이주여성의 주체성은 구조적으로 결정되기 보다는 끊임없는 협상과 저항을 통해 만들어지며 통합적이기 보다는 내적인 분열과 모순을 가진다는 푸코와 버틀러의 입장을 견지하면서, 푸코의 ‘당면투쟁(immediate struggle)’ 개념을 적용하여 탈구위치를 완화하려는 다양한 종종 탈구위치를 강화하는 역설을 초래한다는 것을 지적함으로써 버틀러의 ‘행위자의 딜레마’를 재확인시킨다(파레냐스, 2009). 또한 이탈리아의 높은 이민

장벽과 차별적인 사회분위기 및 가사노동의 성격으로 인해 이주여성들은 공동체 모임에도 불구하고 소외와 고립이라는 아노미를 비껴가지 못하며, 이탈리아보다 상황이 조금 나은 로스엔젤리스에서도 중간계급 중심으로 이민자 공동체가 형성된 탓에 이주여성들은 같은 이민자공동체로부터도 소외를 당하는 상황에 봉착한다(파레냐스, 2009). 즉 지역을 떠나 모든 이주여성들이 무소속의 탈구위치를 경험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한계는 개별 주체의 위치에서 벌이는 당면투쟁이 지닌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파레냐스는 결국 (운동) 조직가들에게 “권력을 덜 소생시키면서 더 크게 저항하는 방법을 도출”해야 하는 막중한 과제를 부여하면서 이주여성들의 개별화된 당면투쟁을 정치적 행동으로 전환시킬 것을 주문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다(파레냐스, 2009:398).

파레냐스의 연구는 한국의 맥락에서도 적용된 바 있다. 이혜경 외(2006)는 한국의 조선족 여성노동자들을 사례로 하여 탈구위치를 협상하고 새로운 가능성들을 개척해가는 이주여성의 ‘디아스포라 여성성’을 다루었다. 이혜경 외(2006)는 조선족 여성들이 ‘친정연결망’을 중심으로 이주민공동체를 구축함으로써 로마나 로스엔젤리스의 필리핀 가정부들과는 달리 무소속의 탈구위치를 극복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이 연구가 주는 주요 시사점은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탈구위치가 이주 정착지의 맥락에 따라 완화되거나 다른 지점에서 형성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이주여성의 네트워크가 이들에게 권력을 강화하는 주요 도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이 두 가지 점은 파레냐스의 연구에 대하여 필자가 제기하고자 하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우선 파레냐스의 연구는 이주여성들이 정착하게 되는 사회의 맥락과 그로부터 파생되는 권력관계에 대해 정밀한 분석을 제시하지 못한 감이 있다. “응접의 맥락(context of reception)”(파레냐스, 2009)으로 번역된 이 용어는 이주여성의 경험과 사회적 위치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기제가

지만 이주여성들이 당면하는 맥락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탈구위치가 형성된다는 저자의 주장에 문혀 두루뭉술하게 가정되었을 뿐 심층적으로 분석되지 못했다. 서로 다른 지역으로 간 이주여성들 간의 경험과 사회적 위치의 차이는 수용국의 시민권 및 이민관련제도, 수용국 사회의 인종 및 젠더구성, 글로벌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의 수용국의 위치 및 노동시장의 조건, 이주여성들의 일상을 규정하는 도시경관 및 하부시설, 기타 언어·종교·문화적 관습 등이 복잡하게 작동한 결과이다. 이러한 조건들은 다양한 스케일에서 복합적으로 작동한다. “응집의 맥락”이 이러한 복합적인 조건들이 교차하여 작동하는 ‘스케일’을 분석에 포함시킨다면 더욱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분석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파레나스의 연구는 로마와 로스엔젤리스를 단순히 필리핀 가사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향하는 곳이라는 이유로 선택했을 뿐 두 지역이 필리핀 가사노동자들과 맺게 되는 권력관계의 역사적, 정치적, 문화적 맥락을 분석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아쉬움을 남긴다. 미국은 과거 필리핀의 식민 모국이었고 그 잔재는 여전히 남아서 보이지 않는 위계를 형성하고 있다. 스페인 식민 통치가 남긴 가톨릭이라는 종교는 그 종교의 중심지인 로마와 문화 권력에 있어서 위계관계를 형성하도록 한다. 즉 두 지역은 제1세계 내에서도 필리핀 이주민들의 탈구위치를 더욱 극대화 할 수 있는 특수한 ‘장소’라는 점이다. 이는 아시아 지역으로 이주한 필리핀 여성들의 사례연구와 비교해 보아도 극명하게 드러난다. 특히 영어라는 식민통치의 잔재가 오히려 필리핀 이주여성들의 언어적 자원이 되는 역설적인 상황에서 이들의 영어소통능력은 영어가 권력화한 아시아권에서는 강력한 협상력을 발휘한다. 가령 란(Lan, 2003a, 2003b)은 후발산업국인 대만의 신흥부유층 가정에 가사노동자로 일하는 필리핀 이주여성들의 사례를 통해 고용인보다 더 높은 영어소통능력을 바탕으로 고용인의 위치를 글로벌 자본주의 체제에서 반주변부

적인 위치로 폄하하면서 상하관계에서 비롯되는 권위를 부정함으로써 자신의 계급하락의 모순을 상쇄하려는 미시정치를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여와 후양(Yeoh and Huang, 1998)도 같은 동남아시아이자 영어권인 싱가포르에서 가사노동자로 일하는 필리핀 여성들을 사례로 하여 고용주에 대항하여 높은 협상력을 습득하는 이들의 미시정치와 일상의 저항을 소개했다. 이처럼 세계체제 내에서 반주변부를 점하는 아시아 발전국가로의 이주는 신식민주의적 위계관계의 재편 속에서 인종과 계급, 젠더가 새롭게 협상되는 맥락을 고찰할 여지를 던져준다. 이는 이주여성의 탈구위치나 정도가 “응접의 맥락”에 따라 변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두 번째 문제제기는 파레나스가 회의적으로 결론내린 당면투쟁의 효용성에 대한 부분이다. 이와 관련된 첫 번째 쟁점은 이주여성들의 아래로부터 권력화(empowerment) 가능성의 여부이고, 두 번째 쟁점은 무엇이 과연 권력화를 의미하는지에 대한 것이다. 파레나스는 개인의 당면투쟁이 이주여성들이 처한 구조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음을 강조했다. 그러한 사례를 선별하여 보여주었다. 이는 역으로 말하면 이주여성들을 규정하는 글로벌 자본주의의 불평등과 강고함에 대한 비판이기도 하다. 그러나 기계형(2010)도 지적하듯이 이는 다소 맥빠지는 결론이 아닐 수 없다. 이 여성들의 해방은 가부장적 글로벌 자본주의 체제를 전복하지 않는 한 요원하며 따라서 외부로부터의 구원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페미니스트 투쟁의 역사로부터 얻는 교훈 중 하나는 외부세력과의 연대는 때때로 필요하지만 궁극적인 해방은 억압받는 여성주체 스스로의 권력화로부터 나온다는 점이다. 과연 이주여성들은 스스로 권력화할 가능성이 없는 것인가?

그러나 이미 여러 연구들과 일부 현실은 그 반대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페사(Pessar, 2001)는 과테말라 난민여성의 스케일의 정치를 통해 가부장적이고 반인권적인 자국의 난민정책에 대한 협상 사례를 보여

준 바 있고, 시아(Hsia, 2006)는 아직 초기 단계이기는 하지만 대만의 결혼이주여성들이 지역의 페미니스트 활동가들과의 협업으로 정치세력화할 수 있는 지역모임을 여러 스케일에서 결성해 가는 사례를 제시한 바 있다. 실비(Silvey, 2004)도 사우디아라비아로 이주한 인도네시아 가사노동자들이 처한 젠더억압과 반인권적 현실을 국제무대에서 쟁점화함으로써 이들의 노동이 집과 사적인 영역에 머물러야 한다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가부장적 이주여성정책에 도전하는 사례연구를 제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홍콩에서는 이미 이주가사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하여 노동자로서 권리를 보장받는 단계에 이르렀다. 주말마다 필리핀 가사노동자들의 해방구를 이루는 도심의 주말공동체는 글로벌 도시 홍콩의 스펙터클한 경관으로 떠오른 지 오래다. 글로벌 자본주의의 심장부에서 자리를 펼치고 만담을 즐기는 이주여성들의 친교공동체는 비록 가부장적 자본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저항에서 비롯된 것은 아닐지라도 이들의 일상공간에서의 당면투쟁을 지속시키고 연대를 만들어내는 저항의 장소 역할을 했다. 특히 가사노동자로 도시의 곳곳에 산재해서 보이지 않았던 그녀들이 글로벌 자본주의의 상징인 공적 공간(가령 홍콩-상하이 은행)을 점령하면서 그 존재가 스펙터클하게 가시화된 것만으로도 이러한 저항의 장소는 큰 정치적인 파급력을 띤다. 여와 후양(1998)의 연구에서도 엿볼 수 있듯이 가사노동자들의 주말공동체는 비록 한시적이고 뿌리내리지 못하는 한계가 있지만 그 가시적 상징성과 더불어 일상의 관심과 밀착된 정보가 오고가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정치적 각성과 연대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다⁸⁾.

이혜경(2010)도 지적하듯이, 파레나스의 연구는 로마와 로스엔젤리스의 필리핀 가사노동자들이 영토에 뿌리내린 공동체를 건설하지 못한 이

8) 한국의 필리핀 이주노동자들의 주말공동체를 연구한 권종화(2005), 정현주(2010)의 연구를 참고할 것.

유에 대해 다각적인 분석을 제시하지 못했다. 따라서 이주여성들의 일부 당면투쟁에 근거하여 이들의 정치세력화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을 내리기 이전에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또는 불가능하게 만드는 조건에 대한 충분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주여성의 권력화와 관련된 두 번째 쟁점은 과연 무엇이 권력화인가 하는 질문이다. 파레나스(2001: 1152)는 불완전한 시민권을 지닌 또 다른 하층이민노동자들과의 연대를 통해 상상의 글로벌 공동체를 구축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제안을 한 바 있다. 가사노동자가 재생산노동자로 인정받는 것은 노동자로서 이들의 권리를 쟁취하는데 매우 중요하지만 가부장적인 위계가 노동계에까지 만연해 있는 사회체제에서 젠더와 인종, 국적 등 다중적인 탈구위치를 지닌 이주여성노동자를 일반 노동자화 하는데 따른 위험도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 실비의 사례연구에서도 언급되었듯이 가사노동자의 문제를 공적영역에서 담론화하는 것은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실비(Silvey, 2004: 150)의 지적처럼 이주여성의 가사노동을 국가 및 국제적 이슈로 만들기 위해서는 또 다른 억압의 지점들이 희석될 수 있는 개연성이 존재하며(대표적으로 인종차별), 무엇보다 이러한 담론은 결혼이민자 등 다른 이주여성들과의 연대에 불리할 수도 있다. 이주여성들의 문제는 인권 프레임, 젠더 프레임, 계급투쟁 프레임, 또는 (한국에서처럼) 다문화 프레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재현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각각의 프레임이 간과하는 지점이 무엇이며 그것이 이주여성들의 탈구위치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를 성찰하는 작업이다.

이러한 점은 가사노동자들이 이주여성의 핵심구성원인 대다수의 지역과는 달리 결혼이주여성을 중심으로 이주여성 담론이 형성된 한국의 특수한 맥락에 큰 시사점을 준다. 즉 '노동자'로 온 이주여성들과 달리 결혼을 통해 '국민의 아내'로서 '합법적'인 성원이 된 이주여성들은 이러한 노동자 담론에서 소외될 수 있으며, 이는 결혼이주여성들은 여타 이주여

성들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인식을 심어주게 된다. 이는 이주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그녀들은 온정주의적 다문화정책의 대상이 아니므로), 결혼이주여성들을 젠더관계 속에서만 규정하는(즉, 다문화가정이라는 정책 프레임에 가두는) 현 상황을 더욱 고착화시킬 우려가 있다. 이주여성들은 결혼하여 노동자가 될 수도 있으며 노동자로 와서 결혼할 수도 있다. 그녀들이 합법적인 다문화 구성원이든, 가사노동자나 공장노동자든, 불완전한 시민권을 가진 채 다중적인 억압에 노출된 소외계층이라는 공통점을 지닌다는 점에서 이주여성을 단순히 노동자로 또는 아내로만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4. 결론

본 논문은 페미니스트 지리학에서 논의되어 온 공간개념을 이주여성 연구에 접목하고자 시도하였다. 그 어떤 학문분과보다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공간개념을 탐색해 온 페미니스트 연구는 이런 점에서 지리학과 기타 공간연구 분야와 간학문적 협업이 매우 용이하며 그 지평 또한 넓다고 본다. 비록 대부분의 페미니스트 연구에서 공간은 메타포로서 기능을 하지만 메타포가 결국 사회-공간적 관계에서 배태되며, 생성된 메타포는 사회-공간적 관계를 상상하는 방식을 재규정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메타포의 역할을 절대로 과소평가할 수 없다. 그러나 본 연구는 공간적 개념의 효용성이 메타포로서만 그치지 않음을 강조하면서 여성주체들이 다양한 일상의 국면에서 공간성을 자원으로 활용한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피억압 주체의 해방에 궁극적인 관심을 가지는 페미니즘 연구가 공간성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인 셈이다.

본 연구에서 공간과 젠더의 접점을 모색하기 위해 사례로 분석한 분

이는 최근 한국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는 페미니스트 이주연구였다. 이주라는 과정이 역동적인 공간성을 내포하고 있는데다 재생산노동자로 국경을 넘는 최근의 이주여성을 둘러싼 맥락 역시 다양한 스케일에서의 과정이 긴밀하게 연결되면서 공간관계가 그 중심을 차지하고 있기에 페미니스트 이주연구는 공간적 사유를 통해 더욱 발전할 여지가 큰 분야이다. 분석을 위한 사례로 소개한 ‘권력의 젠더지리’나 파레냐스의 거시범위-중범위-미시범위 이론화도 이주과정을 조직하는 개념으로 스케일을 이미 분석에 포함시켰고, 이주여성들의 다면적인 정체성의 협상을 위치 개념으로 설명했다(사회적 위치와 탈구위치). 그러나 이들 연구에서 간과하고 있는 공간인식은 바로 그러한 스케일이 분석의 단위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바로 이주여성 또는 다른 세력에 의해 사회적으로 구성된다는 측면이었다. 또한 이주여성들이 정착하게 되는 사회의 맥락도 여성들 간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기제로서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를 분석의 틀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다. 그 사회적 맥락(파레냐스가 “응접의 맥락”이라고 두루뭉술하게 표현한)을 분석할 때 스케일, 장소, 경계, 이동성과 같은 공간개념은 매우 유용할 수 있다. 이주여성이 만들어가는 초국가적 장소와 다양한 스케일에서의 공동체, 그녀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안전공간, 이주여성들이 가로지르고 또 그 내부에서 새롭게 만들어 내는 경계들, 이주여성들의 이동성을 제약하거나 또는 높여주는 다양한 기제들 등이 바로 이들 여성들의 ‘당면투쟁’과 직결된 이슈들이기 때문이다.

오랜 세월동안 페미니스트 지리학자들은 공간에 갇힌, 공간에서 배제된, 공간을 마음대로 이동할 수 없는 타자들의 목소리를 복원하고자 투쟁해 왔다. 그러나 최근 여성들의 높아진 이동성과 도시공간의 포스트모던화로 인해 이분법적인 가부장적 공간이 일면 해체된 듯이 보였고 페미니스트 투쟁의 전선은 다원화되었다. 여성의 공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유통기한이 지난 촌스러운 구호처럼 들릴 지경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주여성을 연구한다는 것은 여전한, 어쩌면 더 교묘한 다중적인 억압을 예리하게 분석해 낼 것을 요구한다. 그 억압에는 단순히 제1세계 백인 남성만이 가담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가부장적 젠더분업 체제가 여전히 지속되는 21세기에 자본주의 중심부의 여성은 더 취약한 위치에 있는 이주여성에게 재생산노동을 전가하게 되고, 이주여성들은 또다시 더 취약한 위치에 있는 자국의 여성들에게 그 공을 넘기는 체제가 바로 초국가적 가족체제이다. 페미니스트 이주연구가 이주여성들뿐만 아니라 그녀들의 뒤에 남겨진 사람들까지도 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여전히 공간에 갇혀서, 세계자본주의 경제의 중심부에서 배제된 채, 누군가에 의해 이동을 당하는 타자들이 바로 안잘두이가 말하는 “경계지대에 선” 혼성적 주체이며 “제1세계에 의해 피 흘리는 제3세계”이다. 다문화주의로 포장된 온정주의적 가부장제가 지배하는 다문화가정과 지역사회, 제3세계 값싼 여성 노동을 끌어들이는 수출자유지구나 공장지대, 이주여성의 기사노동을 통해 유지되는 제1세계 중산층 가정 등이 바로 인종, 계급, 젠더 차별이 교차하는 경계지대이다. 경계지대에 선 여성들의 당면투쟁에 주목하는 것은 그것이 지닌 저항의 잠재성뿐만 아니라 다중적인 억압으로 제 목소리를 내기 힘든 소외된 주체의 목소리를 듣고자 함이다. 스케일의 정치, 장소와 정체성의 재협상, 경계넘기와 이동성의 제약 또는 확장 등과 같은 공간적 개념은 이러한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려주는 학문적 언어이자 소외된 주체의 에이전시를 보여주는 정치적 자원으로 재구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참고문헌

- 권종화(2005), “한국내 필리핀 이주자 공동체의 형성과 의미”, 연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석사학위 논문.
- 기계형(2010), “이주의 여성화에 대한 비판적 성찰: 『세계화의 하인들: 여성, 이주, 가사노동』”,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소, 『아시아여성연구』, 제49권 2호, 257-266쪽.
- 노승희(2004), “글로리아 안잘두아 - 경계선 없는 경계지대를 살아가기”,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여/성이론』, 제11호, 259-272쪽.
- _____(2005), “전지구화 시대의 대항 페미니스트 주체: 글로리아 안잘두아의 유색여성 페미니즘과 메스티자 주체론”, 21세기영어영문학회, 『영어영문학 21』, 제18권 1호, 27-52쪽.
- 로즈, 질리언(2011), 『페미니즘과 지리학: 지리학적 지식의 한계』, 정현주 옮김, 파주: 한길사, Rose, G.(1993), *Feminism and Geography: the Limits to Geographical Knowledge*, Minneapolis: Univ. of Minnesota Press.
- 맥도웰, 린다(2010), 『젠더, 정체성, 장소: 페미니스트지리학의 이해』, 여성과공간연구회 옮김, 파주: 한울, McDowell, L.(1999), *Gender, Identity and Place: Understanding Feminist Geographies*, Cambridge: Polity Press.
- 바바, 호미(2002), 『문화의 위치』, 나병철 옮김, 서울: 소명출판사, Bhabha, H. K.(1994), *The Location of Culture*, London: Routledge.
- 이혜경(2010), “이주 여성들의 다중정체성 - 국가·가족·계급·이주민공동체”,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로컬리티 인문학』, 제3호, 351-360쪽.

이혜경·정기선·유명기 외(2006), “이주의 여성화와 초국가적 가족: 조선족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학』, 제40권 5호, 258-298쪽.

정순국(2010), “다문화 사회에서의 글로리아 안잘두아의 『경계지대들 /경계선에서: 새로운 메스티자』의 혼성성의 시학”, 한국영미문화학회, 『영미문화』, 제10권 2호, 231-266쪽.

정현주(2007), “공간의 뒷에 갇힌 그녀들?: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이동성에 대한 연구”, 한국도시지리학회, 『도시지리학회지』, 제10권 2호, 53-68쪽.

_____ (2008), “이주, 젠더, 스케일: 페미니스트 이주연구의 새로운 지형과 쟁점”, 대한지리학회, 『대한지리학회지』, 제43권 6호, 894-913쪽.

_____ (2010), “대학로 ‘리틀마닐라’읽기: 초국가적 공간의 성격 규명을 위한 탐색”, 한국지역지리학회, 『한국지역지리학회지』, 제16권 3호, 295-314쪽.

파레냐스, 라셀 살라자르(2009), 『세계화의 하인들: 여성, 이주, 가사노동』, 문현아 옮김, 서울: 도서출판 여이연, Parreñas, R. S.(2001), *Servants of Globalization: Women, Migration, and Domestic Work*,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하비, 데이비드(1994), 『포스트모더니티의 조건』, 구동희·박영민 옮김, 서울: 한울, Harvey, D.(1990), *The Condition of Postmodernity*, Malden: Blackwell Publishers.

Agnew, J.(1987), *Place and Politics: The Geographical Mediation of State and Society*, Boston: Allen & Unwin.

Anzaldúa, G.(1999), *Borderlands/La Frontera*, San Francisco: Aunt Lute Books.

- Appadurai, A.(1996), "Sovereignty without Territoriality: Notes for a Postnational Geography", in *The Geography of Identity*, ed. P. Yeager,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pp. 40-58.
- Collins, P. H.(1990), *Black Feminist Thought: Knowledge, Consciousness and the Politics of Empowerment*, London: Harper Collins.
- Constable, N.(2005), "Introduction: Cross - Border Marriages, Gendered Mobility, and Global Hypergamy", in *Cross-Border Marriages: Gender and Mobility in Transnational Asia*, ed. N. Constable,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 Cresswell, T.(2004), *Place: A Short Introduction*, Malden: Blackwell Publishers.
- Delaney, D. and H. Leitner(1997), "The Political Construction of Scale", *Political Geography*, 16(2), pp. 93-97.
- Devasahayam, T. W., S. Huang and B. Yeoh(2004), "Southeast Asian Migrant Women: Navigating Borders, Negotiating Scales", *Singapore Journal of Tropical Geography*, 25(2), pp. 135-140.
- Ehrenreich, B. and A. R. Hochschild(eds.)(2002), *Global Woman: Nannies, Maids, and Sex Workers in the New Economy*, New York: Metropolitan Books.
- Foucault, M.(1984), "Space, Knowledge, and Power", in *The Foucault Reader*, ed. P. Rabinow, New York: Pantheon, pp. 239-256.

- Goldring, L.(1998), “The Power of Status in Transnational Social Fields”, in *Transnationalism from Below*, ed. M. P. Smith and L. E. Guarnizo, New Brunswick: Transaction Publishers, pp. 165-195.
- Hanson, S. and G. Pratt(1991), “Job Search and the Occupational Segregation of Women”,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81(2), pp. 229-253.
- Harvey, D.(1982), *The Limits to Capital*, Oxford: Blackwell,
_____ (1996), *Justice, Nature and Geography of Difference*,
Malden: Blackwell Publishers
- Hooks, B.(1990), *Yearning: Race, Gender, and Cultural Politics*,
Boston: South End Press.
- Hsia, H. C.(2006), “Empowering “Foreign Brides” and Community through Praxis-oriented Research”, *Societies Without Borders*, 1, pp. 93-111.
- Jung, H.(2012), “Spatial Politics and Identity Renegotiation of Women Marriage Migrants in South Korea”, *Asian and Pacific Migration Journal*, 21(2), 미간행.
- Lan, P. C.(2003a), “Negotiating Social Boundaries and Private Zones: the Micropolitics of Employing Migrant Domestic Workers”, *Social Problems*, 50(4), pp. 525-549.
_____ (2003b), ““They Have More Money but I Speak Better English!’ Transnational Encounters between Filipina Domestic and Taiwanese Employers”, *Identities: Global Studies in Culture and Power*, 10(4). pp. 133-161.
- Lauser, A.(2008), “Philippine Women on the Move: Marriage

- across Borders”, *International Migration*, 46(4), pp. 85-110.
- Mahler, S. J. and P. R. Pessar(2001), “Gendered Geographies of Power: Analyzing Gender across Transnational Spaces”, *Identities: Global Studies in Culture and Power*, 7(4), pp. 441-459.
- _____ (2006), “Gender Matters: Ethnographers Bring Gender from the Periphery toward the Core of Migration Studie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40(1), pp. 27-63.
- Mandel, J. L.(2004), “Mobility Matters: Women’s Livelihood Strategies in Porto Novo, Benin”, *Gender, Place and Culture*, 11(2), pp. 257-285.
- Marston, S. A.(2000), “The Social Construction of Scale”, *Progress in Human Geography*, 24(2), pp. 219-242.
- Massey, D.(1994), *Space, Place and Gender*, Minneapolis: Univ. of Minnesota Press.
- _____ (2005), *For Space*, London: Sage Publications.
- _____ (2007), *World City*, Cambridge and Malden: Polity Press.
- Nagar, R.(1998), “Communal Discourses, Marriage and the Politics of Gendered Social Boundaries among South Asian Immigrants in Tanzania”, *Gender, Place and Culture*, 5(2), pp. 117-139.
- Nagar, R., V. Lawson, L. McDowell, et al.(2002), “Locating Globalization: Feminist (Re)Readings of the Subjects and Spaces of Globalization”, *Economic Geography*, 78(3), pp.

257-284.

Parreñas, R. S.(2000), “Migrant Filipina Domestic Workers and the International Division of Reproductive Labor”, *Gender & Society*, 14(4), pp. 560-581.

_____ (2001), “Transgressing the Nation-State: the Partial Citizenship and “Imagined (Global) Community” of Migrant Filipina Domestic Workers”, *Signs: Journal of Women in Culture and Society*, 26(4), pp. 1129-1154.

Pessar, P. R.(2001), “Women’s Political Consciousness and Empowerment in Local, National and Transnational Contexts: Guatemalan Refugees and Returnees”, *Identities: Global Studies in Culture and Power*, 7(4), pp. 461-500.

Pessar, P. R. and S. J. Mahler(2003), “Transnational Migration: Bringing Gender in”,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37(3), pp. 812-846.

Price - Chalita, P.(1994), “Spatial Metaphor and the Politics of Empowerment: Mapping a Place for Feminism and Postmodernism in Geography?”, *Antipode*, 16(3), pp. 236-254.

Robinson, K.(2007), “Marriage Migration, Gender Transformations, and Family Values in the ‘Global Ecumene’”, *Gender, Place and Culture*, 14(4), pp. 483-497.

Sassen, S.(1984), “Notes on the Incorporation of Third World Women into Wage Labor through Immigration and Offshore Production”,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18(4), pp. 1144-1167.

- _____ (2002), "Global Cities and Survival Circuits", in *Global Woman: Nannies, Maids, and Sex Workers in the New Economy*, ed. B. Ehrenreich and A. R. Hochschild, New York: Metropolitan Books, pp. 254-274.
- Silvey, R.(2004), "Transnational Migration and the Gender Politics of Scale: Indonesian Domestic Workers in Saudi Arabia", *Singapore Journal of Tropical Geography*, 25(2), pp. 141-155.
- _____ (2006), "Geographies of Gender and Migration: Spatializing Social Difference",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40(1), pp. 64-81.
- Smith, N.(1992), "Geography, difference and the politics of scale", in *Postmodernism and the Social Sciences*, ed. J. Doherty, E. Graham and M. Malek, London: MacMillan, pp. 57-79.
- Wang, H.(2007), "Hidden Spaces of Resistance of the Subordinated: Case Studies from Vietnamese Female Migrant Partners in Taiwan", *International Migration Journal*, 41(3), pp. 706-727.
- Wright, M.(1997), "Crossing the Factory Frontier: Gender, Place and Power in the Mexican Maquiladoras", *Antipode*, 29(3), pp. 278-302.
- _____ (1998), "Maquiladora Mestizas and a Feminist Border Politics: Revisiting Anzaldúa", *Hypatia: A Journal of Feminist Philosophy*, 13(3), pp. 114-131.
- Yeoh, B. and S. Huang(1998), "Negotiating Public Space:

Strategies and Styles of Migrant Female Domestic Workers
in Singapore”, *Urban Studies*, 35(3), pp. 583-602.

〈인터넷 자료〉

<http://www.righttothecity.org>

원고접수: 2012. 05. 04

원고수정: 2012. 06. 15

게재 확정: 2012. 06. 12

〈Abstract〉

Paradoxical Spaces of Migrant Women: Incorporating Spatiality into Theorization of Migrant Women

Hyun-Joo Jung

Recent feminist scholarship has extensively used various spatial terminologies. These terminologies as metaphors visualize or describe the way women are positioned in power relations. In this paper, questioning whether those spatial languages are useful only in a metaphorical sense, I argue that spatialities are not only useful as metaphors, but also actually utilized by the women in question for their micro-politics. Drawing on the feminist migration literature, I explore how spatial concepts can advance understanding of migrant women and help theorize them. Migrant women as reproductive labors, called as “servants of globalization” by Parreñas, are gendered subalterns in this globalizing era. In spite of their transnational mobility, they face multi-layered oppressions. They, however, negotiate their dislocations by constructing transnational social fields or alternative scales. This paper reviews several spatial concepts essential to migration research-scale, place, border, and mobility. Then, it examines two widely known frameworks that theorize migrant women from spatial perspectives - ‘the gendered geographies of

power' addressed by Mahler and Pessar and 'dislocations' by Parreñas. Also, further applicability to other types of migrants, such as marriage migrants, is explored.

KEY WORDS: migrant women, scale, place, border, mobility